



왕이 되고 싶어!

기드온의 이중성과 영적 레슨

본문: 사사기 8장 22-27절
말씀: 최무열 목사

포도주 틀에 숨은 소심한 농부

전형적인
소심한 A형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
숨어서 타작하던 겁쟁이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위축된 인간의 본성

겸손한 부르심과 첫 마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나셋 중의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사기 6:15)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완벽한 겸손으로
시작된 사명.

300 용사의 대승, 위대한 영웅의 탄생

병력 : 단 300명



상대 : 미디안 대군



결과 : 이스라엘의
완벽한 구원



억눌렸던 겹쟁이가 하루아침에
구국의 영웅으로 등극하며 환경이 급변함.

백성들의 환호와 왕위 요청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충분한 공로와
자격의 획득

가장 합법적이고
명분 있는 권력의 유혹



기드온의 공식 거절 (완벽한 명분)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의 핵심 주제를 정확히 꿰뚫는 신앙 고백. 겉보기에는 완벽한 리더의 모습.

반전: 그런데 말입니다...

완벽했던 신앙 고백 바로 다음 절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속내

위장된 겸손이 벗겨지고,
초심을 잃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뒤에서 수합한 전리품

요청자 기드온 (스스로 먼저 요구함)

수집량 금 1,700 세겔 (약 22kg)

현 시가 약 50억 원 상당

겉으로는 왕위를 거절했지만, 뒤로는 왕이 가질 법한 거대한 부를 챙기기 시작함.

권력의 상징물 획득: 스스로 왕의 아이템을 취하다



초승달 장식

당사 양현과 이방 군주의
절대력 상징물



자색 의복

바다 달팽이 염료 1만 마리로 만든
최고급 왕의 옷
(현 시가 약 1억 원 상당)



낙타 목 사슬

왕의 승용물(낙타)에만 두르는
권력의 치장

입과 손의 괴리 (위선의 매트릭스)



나는 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왕의 자리만 사양했을 뿐, 왕이 누리는 모든 권력과 부는 이미 취했다.



은밀히 수집한 왕의 상징물들
(금, 자색옷, 장식).

오브라에 세운 통금 에봇 (스스로 만든 우상)



재료: 백성들에게 거둔 금
22kg을 통째로 부어 만듦

본질: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아닌,
자신의 권위를 신격화하는
금송아지와 같은 역할

결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됨

영적 권력의 탈취: 실로를 지우고 오브라를 세우다



실로
(Shiloh)



오브라
(Ophrah)

실로에 가서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 내가 만든 에봇이 있는 오브라로 오라. 사실상 내가 하나님이다.

왕의 보좌와 쾌락에 취하다

1. 자신의 집에 거주하되,
사실상 왕의 보좌에 앉아 통치함

2. 수많은 아내와 처첩을 둠

3. 몸에서 난 아들만 70명

입으로는 **왕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삶의 형태는 완벽한 이방 군주.

야망의 정점: 첩의 아들 아비멜렉

이름: 아비멜렉 (Abimelech)
의미: 내 아버지는 왕이다
(My father is King)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왕이시다 라고 했으나, 자기 아들의 이름은 내가 왕이다 라고 지은 끔찍한 이중성.

초심을 잃어버린 영웅의 실체



1. 겸손한 부르심
2. 대승리와 환호
3. 위장된 거절
4. 금과 상징물 요구
5. 우상(에봇) 제작
6. 아비멜렉(내 아버지가 왕이다)
1. 겸손한 부르심



속으로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 나 왕 되고 싶어!

우리는 기드온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사울 왕도 처음엔
행구(짐 보따리) 사이에
숨을 만큼 겸손했지만,
결국 폭군이 되었다.



인간의 본성은
누구라도 조금만 남보다
높은 위치에 서면
스스로 왕의 자리를
쫓아내려 한다.

성공이 가져다주는
맹독, 교만

일이
잘됨 ➤ 돈과 명예의
축적 ➤ 지위
상승 ➤ 내가 왕이다
(초심 상실)

환경이 편해지고 부가 쌓일 때,
우리 내면의 초심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안개 같은 인생 (Mist-like Life)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14)

영원할 것 같던 50억의 금도, 왕의 권력도 안개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왕이시다

사울과 기드온의 실패를
피하는 유일한 길: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는 것.

왕의 자리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초심을 지키는 십자가의 은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권력을 경계하라.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게 붙드시는 은혜 구하기).

우리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을 섬기는 자들입니다.